“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4호 HYUNBULNEWS.COM 2025년 11월 12일(음력 9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부결…사면 · 복권 통과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비구니 호계위원’ 단 1표 차 부결
수불 · 선각 스님 등 사면 · 복권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명시한 ‘종헌’ 개정안이 1표 차로 아쉽게 부결됐다. 수불 스님(안국선원장)과 선각 스님(전 해인사 주지)을 포함한 10명에 대한 ‘사면·경감·복권 동의의 건’은 만장일치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1월 5일 서울 봉은문화회관 2층에서 재적의원 81명 중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6회 정기회를 개회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회에 앞서 보궐선거로 중앙종회의원에 선출된 일감·보륜·법주·세림 스님은 의원 선서를 통해 공식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개회사에서 종단 운영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건강한 비판을 당부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은 지난 6월 10일 화재 발생 이래 정상적인 종단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후 5개월의 시간은 본말사와 종도들이 중앙종단의 중요성과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며 “한국사회의 종교지평을 크게 흔들 수 있는 ‘2027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범시민연대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함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하고 향후 종단 운영 방안을 밝혔다. 스님은 “현재 통합 행정 체계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효율성과 활력이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3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 종단 안정과 발전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명상 확산과 공익적·불교적 수익사업 개발 등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종헌 개정의 건’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초심호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개정안이 1표 차로 부결됐다.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을 비롯한 59인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구니 관련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초심호계원을 비구니 호계위원 2인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53표, 반대 22표로 종헌 개정안 가결 정족수 54표에 단 1표가 모자라 종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종단 스님들을 직접 찾아 법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고, 종회 내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됐기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201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사면·경감·복권은 대상자 10명에 대한 동의안이 만장일치 가결됐다. 이날 종회 결의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따른 권리 제한을 받고 있던 수불 스님은 복권됐고, ‘직무상 비위’ 등으로 제적됐던 선각 스님은 사면·복권됐다.

또 대안·성국 스님(제적)과 시연 스님(법계강급)은 사면·복권됐고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은 응관·덕중 스님은 복권, 법찬·성견·정화 스님은 경감됐다. 사면·경감·복권 동의안은 종정 스님의 재가 후 시행된다.

한편, 선광 스님 외 26인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은 이월됐다. 개정안은 초심호계위원을 7인에서 2인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2면〉



11월 5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236회 정기회에서 종회의원 스님들이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참여’ 관련 종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구례 화엄사는 11월 5일, 3년여 간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본래 자리로 돌아온 국보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의 복원 기념식을 열고 다시 법의 등불을 밝혔다.

화엄사 천년 법등 다시 불 밝히다

국보 ‘화엄사 각황전 석등’ 복원
11월 5일 경내서 복원 기념식
3년 보존처리 끝에 원위치 봉안

보존처리를 위해 수리에 들어갔던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이 3년 만에 천년 고찰 화엄사로 돌아왔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1월 5일 각황전 앞에서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복원 기념식’을 봉행하고 다시 법의 등불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스님들과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박종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 김수철 화엄사 신도회장, 이개호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 장길선 구례군의장, 문승옥 부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석등 복원을 축하했다.

복원된 석등은 지난 2012년, 2015년, 2018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화사석과 상대석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아 2022년 해체 및 보존처리가 결정됐다. 2023년 5월에는 간주석 위 8개 부재를 해체해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옮긴 뒤 석재의 파손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 부위 세척, 균열 부재 접합, 결실 부분 복원 등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했다.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의 보존처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주도했다. 석등은 부분 해체 후 손상된 부재를 3D 스캐닝으로 정밀 분석하고, 미세 균열 내부에는 주입식 마이크로 인젝션 공법을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내부에는 티타늄 보강 핀을 삽입해 진동과 온도 변화에 의한 파손을 최소화했으며, 표면 세척에는 저압 미립자 수세 방식이 사용돼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오염층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이 같은 3년간의 세밀한 복원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시 각황전 앞에 봉안됐다.

주지 우석 스님은 회향사에서 “화엄사 석등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중생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지혜의 등불이자 자비의 마음을 일깨우는 깨달음의 빛”이라며 “오늘 복원된 석등은 단순한 문화유산의 복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법등(法燈)을 다시 밝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밝은 마음과 자비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길 서원한다”고 덧붙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세계 명상 한자리 “명상 체험 오세요”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대미
‘명상체험부스’ 행사 개최
11월 22~23일 SETEC서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대미를 장식할 체험행사가 열린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11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명상 대중화를 위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강남 학여울역 SETEC 제2전시실에서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체험부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상, 하나 되는 길’을 주제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를 지향하는 이번 행사는 24개의 명상체험부스와 9개의 세계명상체험부스로 구성된다.

행사 참가자들은 신체·감각·예술을 매개로 자신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법을 경험할 수 있다.

‘몸과 호흡의 명상’ 부문에서는 △바른 자세 △걷기 △호흡 명상 등 신체 감각을 통한 알아차림을 다루며, ‘감각과 예술의 명상’에서는 △싱잉볼 △아로마 △모래만다라 △미술 등 오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유와 표현의 명상’에서는 △글쓰기 △사경 △디지털 명상 등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며, ‘차와 쉼의 명상’에서는 전통차 시음과 마음챙김 식사 명상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매년 큰 호응을 얻어온 세계명상체험관에서는 △하와이 △티베트 △튀르키예 △일본 △영국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등 9개국의 전통 수행법이 소개되며 간화선부터 수피 회전명상, 젠가든 좌선, 위빠사나, 프라나야마까지 세계 각국의 명상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종학연구소는 “올해에는 부스도 증가했고 무엇보다 선명상 트렌드에 맞춰 세계 각국의 명상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동국대 안에서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외부에서 행사를 하는 만큼 대중화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실습에도 중점을 뒀다. 전문가, 초심자가 모두 찾아도 될 체험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5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5 생명살림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30일(일) 오전 10시 (법문 10시 40분)
◈ 장 소 : 범어사 선문화관
◈ 내 용 : 움직임 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선업스님(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 문 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